

보도자료

서울시 강남구 남부순환로 351길 4, STAY 77 3층 | www.maxst.com

자료문의: (주)맥스트 민지윤 수석 jymin@maxst.com

맥스트, MWC 2023에서 메타버스 서비스 개발 플랫폼 선보인다

메타버스 플랫폼 전문기업 (주)맥스트(#377030)는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열리는 MWC 2023 (Mobile World Congress 2023)에 참가하여 메타버스 서비스 개발 플랫폼을 선보일 예정이다. 맥스트는 2월 27일(월)부터 3월 2일(목)까지 메타버스 서비스 개발 통합 플랫폼 맥스버스 (MAXVERSE), AR 개발 플랫폼(맥스트 AR SDK), AR 글라스를 소개한다.

맥스트가 선보일 ‘맥스버스’는 메타버스 서비스 개발을 위한 통합 플랫폼으로 메타버스 생태계 발전을 견인할 것으로 주목받고 있다. 특히 유니티 플러그인 방식 콘텐츠 저작도구로 XR 시뮬레이션 기능을 포함해 직접 현장에 가지 않고서도 현실 공간 기반의 XR서비스를 개발할 수 있다. XR 텔레프레즌스, 네비게이션, 광고, 게임 등 다양한 분야의 메타버스 서비스 개발이 가능하다.

한층 업그레이드 된 ‘맥스트 AR SDK’ 6.0 버전도 선보일 계획이다. 세계적 수준의 기술력으로 인정받고 있는 맥스트 AR 개발 플랫폼에 Space Tracker 기능을 추가, ‘맥스스캔(MAXSCAN)’ 애플리케이션에 적용하였다. Space Tracker는 반경 10미터 이내로 공간을 스캔하면 자동으로 실제와 같은 공간맵을 제작할 수 있는 기능이다. 이번 MWC에서는 방문객이 직접 제작한 3D 공간맵 상에 AR 콘텐츠를 배치해 볼 수 있는 시연을 제공한다. 스마트폰, 태블릿, AR글라스 등 다양한 하드웨어에 연동하여 현실기반의 AR 콘텐츠를 체험할 수 있다. AR SDK 6.0버전은 상반기 내 공식 배포될 예정으로, 정교한 AR 메시 생성 등 편리한 개발 환경 제공을 통해 현실과 연결되는 새로운 차원의 사용자 경험을 선사할 것으로 기대된다.

맥스트는 업계 최소의 렌즈 두께, 40도 시야각, 100g 이내 초경량의 테더드 방식인 AR 글라스 또한 공개한다. 탑재된 Sensor Fusion SLAM 기술은 디바이스의 움직임을 높은 정확도로 추적하여 몰입감 있는 증강현실 경험을 제공한다. 방문객들은 Space Tracker를 AR 글라스로도 체험할 수 있을 예정이다.

맥스트 관계자는 “이번 MWC를 통해 맥스버스의 해외 진출을 본격화해 나갈 뿐만 아니라 맥스트의 AR 원천기술을 해외 시장에 알리고 글로벌 브랜드 인지도를 높이는데 집중할 계획”이며, “누구나 쉽고 간단하게 만들 수 있는 메타버스 기술을 보편화하여 메타버스가 전세계 사람들의 일상 속 재미와 편의를 향상시킬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포부를 밝혔다.

2010년에 설립된 맥스트는 AR원천 기술 확보와 국산화에 집중해온 기술 전문기업으로 지난 11월 메타버스 개발 플랫폼 맥스버스(Maxverse) 오픈베타 버전을 공개한 후 국내 메타버스 생태계발전을 견인할 혁신 기업으로 주목받고 있다.

'MWC'는 전 세계 이동통신 산업의 최신시장 및 기술 동향을 파악할 수 있는 전시회로 세계이동통신사업자협회(GSMA)가 주최한다. 맥스트는 총 4일간 <Fira Gran Via Congress Square Stand Hall 4, #CS179>에 부스를 운영할 계획이다.

※ MAXST 부스 배치도

- 위치: Fira Gran Via Congress Square Stand CS179

